

디스플레이, 중소형 패널로 전환

2013년 1-9월 매출 36% 급증 ... 삼성디스플레이가 점유율 1위

디스플레이 패널 시장에서 중소형 패널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.

디스플레이서치에 따르면, 2013년 1/4-3/4분기 9인치 이하 중소형 디스플레이 패널 매출이 318억520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34억300만달러보다 36.1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

특히, 2013년 3/4분기 매출은 119억5300만달러로 최대를 기록했고 4/4분기에는 12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

디스플레이 패널 시장에서 중소형 비중은 2013년 1/4-3/4분기 36.6%로 높아졌으며 2009년 23.8%, 2010년 21.7%, 2011년 28.3%, 2012년 29.5%에 이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.

반면, 2013년 1/4-3/4분기 대형 패널 매출은 551억5500만달러로 2012년 617억3300만달러에 비해 10.7% 감소했으며, 2013년 3/4분기에는 183억7000만달러로 20.5%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.

대형 패널 비중은 2009년 76.2%, 2010년 78.3%, 2011년 71.7%, 2012년 70.5%로 70%대를 유지했으나 2013년 1/4-3/4분기 63.4%를 기록하며 60%대로 떨어졌다.

중소형 패널은 스마트폰 및 태블릿PC 등 모바일기기 확대로 급성장하는 반면, 대형 패널은 2011-2012년 TV 시장의 역성장과 PC용 모니터 및 노트북PC 수요가 급감하며 수요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.

2009-2012년 중소형 패널의 연평균 매출 증가율은 15%로 대형 패널 6%보다 2.5배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.

중소형 디스플레이 패널 시장점유율은 2013년 3/4분기 삼성디스플레이가 25.6%로 16분기 연속 1위를 차지했으며 재팬디스플레이 14.8%, 샤프 12.9%, LG디스플레이 9.4%가 뒤를 이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3/12/23>